

광주시 이번엔 100억대 조형물 논란

광주시가 100억원을 들여 환경을 테마로 한 조형기념물을 건립할 계획이어서 '조형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200억원 규모 하계U대회 상징조형물과 60억원대 광주 역사 상징조형물 설치 논란에 이어 세번째다. 특히 이와 관련한 광주시의회 예산심의가 30일 열려 결과가 주목된다.

29일 광주시의회와 시 환경녹지국에 따르면 광주 세계환경포럼 개최와 연계해 100억원을 들여 서구 상무소 각장과 제1하수처리장을 연결하는 '광주천 인도교'를 가설할 계획이다. 이 인도교는 길이 135m, 폭 10~15m 규모이며 LED 가로등과 소형풍력발전기도 설치한다.

시는 이 사업을 위해 내년 예산안

세계환경포럼 개최 연계 '광주천 인도교' 가설 추진 하계U대회·광주역사 상징 조형물 논란 이어 세번째

에 광주세계환경포럼 시설비 및 부대비로 20억원을 편성했다.

시는 사업 설명자료를 통해 "광주천으로 분리된 상무시민공원의 생태축을 앞으로 조성될 유덕동 대상공원 및 제1하수처리장 생태숲과 연결해 시민들의 접근성을 증대하고, 환경을 테마로 하는 관광자원 개발도 도시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인도교를 가설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당초 450억원 규모 세계한

경역스포츠의 랜드마크 기능을 목적으로 한 100억대 상징조형물인 '인도교' 설치, 80억원 규모의 세계환경포럼으로 축소됐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추진돼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 80억원 규모의 행사의 부대시설로 100억대 상징조형물이 적절하냐는 것이다. 특히 최근 인근에 상무교가 개통돼 누가 얼마나 인도교를 이용할 지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원(민주·비례대표)은 "80억원 규모의 행사에 100억대 상징조형물이 말이 되느냐"며 "이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형국으로 사업이 적절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시청 앞 평화공원에 60억원 규모의 광주 역사 상징조형물 설치를 위해 내년 예산에 10억원을 편성했다가 지난 27일 시의회에서 전액 삭감됐다.

앞서 지난 7월에도 200억원 규모 하계U대회 상징조형물을 설치하기 위해 '상징조형물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비' 10억원을 추경예산에 편성했다가 시의회 심의과정에서 전액 삭감돼 무산됐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내년 국고 확보 도와달라" 차시장·지역 국회의원 간담회

박광태 광주시장이 광주 지역 국회의원을 만나 동 구장 신축방안을 설명하고 2010년 국고예산 확보에 대한 협조를 요청한다.

29일 광주시에 따르면 박 시장은 30일 오후 광주 지역 국회의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의원회관 귀빈 식당에서 간담회를 갖는다.

이 자리에서 박 시장은 신축을 추진 중인 동 구장의 민자유치 과정, 향후 건립 계획을 설명한다. 또 박 시장은 국회의원들에게 2015광주 하계U대회 지원 특별법 조기 제정 등 현안에 대한 지원을 당부하고 만찬을 함께 할 계획이다. /윤영기기자 penfoot@



산타 3천명 '장애아·소외계층 돕기' 스타트 3천여명의 산타클로스들이 29일 호수 시드니에서 열린 산타달리기 행사에서 힘차게 출발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시 '도로 조명 통합관리사업' 탄력

지경부 '공모 사업' 선정돼

광주시의 도로조명을 통합해 제어하는 지능형 관계시스템 구축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29일 광주시에 따르면 최근 지식경제부 2010년도 지역에너지절약사업 공모에서 광주시의 '도로조명 관계시스템 구축사업'이 시설보조사업으로 선정돼 7억원의 국비를 지원받는다. /윤영기기자 penfoot@

광주시의 '도로조명 관계시스템 구축사업'은 신속하게 도로 조명을 보수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에너지 절감에 기여한 점이 평가돼 정부 보조금 지원사업에 선정됐다.

시는 그동안 각 자치구별 도로조명 관계장치가 장비별로 호환성이 떨어져 발생하는 가로등 점·소등 관리와 운영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통합관계시스템을 개발, 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성지순례 '하지' 폭우 사망자 106명

이슬람 연중 최대행사인 성지순례 '하지' 기간에 전례 없이 내린 폭우로 인한 사망자 수가 106명으로 집계됐다고 사우디 아라비아 관리가 28일(이하 현지시간) 밝혔다.

이 관리는 구조팀이 생존자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혀 사망자 수가 더 늘어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하지 첫날인 지난 25일 사우

디 홍해 연안도시 제다에 쏟아진 갑작스런 폭우로 건물 등이 붕괴되면서 사망자가 발생했으며, 사우디 당국은 사망자는 사우디 국민과 사우디 거주 외국인들이며 성지 순례자는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사우디 성지순례하지는 건강한 이슬람교도라면 일생에 적어도 한 번은 수행해야 하는 이슬람교도 5대 의무 중 하나다. /연합뉴스

"이명박 정부 후진화 막겠다"

송영오 창조한국당 대표 인터뷰 "필요면 야권 제세력과 공조 계속"



단체는 법적·현실적으로 해체됐으나 정책 이슈와 관련, 필요하다면 야권 및 시민세력 등과 부분적인 공조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나아가 "이명박 정부의 후진화를 막겠다"고 역설했다.

나주 금천면 출신인 송 대표는 광주일고와 서울대 독문과를 졸업한 뒤 4회 외무고시에 합격했으며 외교부 아프리카·중동국장 겸 주스리랑가 대사, 외교통상부 의전장, 주 이탈리아 대사 등을 지냈다. 창당 후에는 당 최고위원으로서 화합형 리더십으로 두터운 신망을 쌓았다는 게 당 안팎의 평가다. /박지경기자 jkpark@

송영오 창조한국당 대표는 29일 "창당정신으로 되돌아가 조직을 가다듬고, 유능하고 참신한 인재를 영입하는 한편 지역과 이념을 벗어난 정책개발을 통해 창조한국당의 제 2기를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특히 ▲문국현 사법살인 ▲용산참사 ▲미디어법 현재 판결을 사법정의를 실추시킨 3대 사건으로 규정된 뒤 "문국현(전) 대표에 대한 정치적·사법적 굴레를 벗겨내고 명예를 회복시키는데 최선을 다하는 등 사법정의 회복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송 대표는 민주당 등과 관계 설정에 대해 "자유선진당과의 교섭

하는 정책 대안을 제시할 것이며, 우리의 뜻과 가치를 요구하는 모든 계층과 이익집단을 아우르는 포괄정당(catch-all party)으로 이끌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 대표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사법정의의 실추시킨 3대 사건으로 규정된 뒤 "문국현(전) 대표에 대한 정치적·사법적 굴레를 벗겨내고 명예를 회복시키는데 최선을 다하는 등 사법정의의 회복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송 대표는 민주당 등과 관계 설정에 대해 "자유선진당과의 교섭

"세종시 특혜맨 혁신도시 무용지물"

민주당 송영길 최고위원 광주서 '저자와의 대화'



린 '제34회 행복서구 아카데미' 초청 강연에서 "세종시에 특혜를 주면 어떤 기업이 나주혁신도시로 오겠느냐"고 반문하며 "세종시 수정은 다른 지방으로 갈 것을 뺀 것으로 모든 게 형편해질 것이다"고 지적했다.

고흥 출신으로 광주 대동고교를 졸업한 3선의 송 최고위원은 지난 24일에는 국회에서 대규모 출판기념회에 이어 광주에서 행사를 가졌고, 전국 주요도시를 순회하며 행사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박정욱기자 jwpark@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민주당 송영길 최고위원(인천 계양을)이 지난 28일 자전적 에세이 '벽을 문으로-송영길, 새로운 도전과 비전'을 들고 광주를 찾았다.

송 최고위원은 이날 오후 전남대 분관 1층 컨벤션홀에서 '저자와의 대화 및 랜 사인회'를 갖고, 10년간의 의정경험을 바탕으로 한 자신의 철학과 비전을 밝혔다.

송 최고위원은 이 책에서 "다시 당겨져가는 분단의 벽에 화해·협력의 문을, 좌절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의 문을, 기득권에

안주하거나 벽에 갇혀 포기하는 사람들에게 소통과 가능성의 문을 열어줘야 한다"면서 "이 책을 통해 새로운 만남과 대화를 시작해 보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인연 및 정치 역정 등을 소개했다.

하지만 그는 "두 대통령의 유산에 안주하거나 두 시대를 무조건 미화하는 것만으로는 집권세력이 될 수 없다"며 "냉정한 자기반성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앞서 송 최고위원은 지난 27일 오후 광주 서구문화센터에서 열

여성부→'여성청소년가족부' 확대 추진

정부와 한나라당은 29일 현재 여성부를 '여성청소년가족부'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지난 27일 여의도 한 식당에서 신상진 제5정책조정위원장과 국회 여성위원, 정부에서 백희영 여성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든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회의에 참석한 한 의원은 "여성부 업무는 청소년 육성과도 밀접한 관계를 갖기 때문에 한 부서에서 하도 한 식당에서 신상진 제5정책조정위원장과 국회 여성위원, 정부에서 백희영 여성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는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확대 개편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지만, 당정은 이를 더욱 확대해 청소년 관련 업무도 여성부로 넘길 방침이다.

이는 보건복지가족부가 신종플루와 같은 전염병 관리나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여성부는 종합적인 가족 및 아동·청소년 보육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연합뉴스

전출산 극복! 전라남도가 함께합니다!

아기 탄생의 우렁찬 울음소리는
"미래 녹색 전남"의 새로운 희망입니다.

["아기 낳고 키우기 좋은 전남 만들기 운동"에
혼도민이 함께 참여합니다.]